

여수시, 태국서 MICE 유치 활성화 마케팅

**태국국제여행박람회서 마케팅
외국 업체대상 1:1 대면홍보도**

여수시가 지난 24~28일 제29회 TITF 2024(태국국제여행박람회) 행사에 참가해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태국의 최대 여행기구인 태국여행업협회(TTAA·Thai Travel Agency Association)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매년 40만명의 소비자·관광·여행업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올해도 일본, 중국, 인도, 스위스까지 세계 각국의 나라가 참가했다.

행사에서 여수시는 참가국에 여수 MICE 인센티브 지원 내용·인프라, 대표 관광지, 이색 MICE 장소 등을 소개하며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영양제 주사 투여 등 의료봉사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가 화양면을 찾아 어르신 50여명에 영양제 조사 투여 등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화양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간단한 검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정완 협의회장은 “사랑나눔 영양제 의료봉사는 매월 여수시 전역을 순회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화양면장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에 감사를 전한다”며 “주민 모두가 건강한 화양면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민선 8기 군수 공약 이행률 45%
보성군, 36개 공약·16건 완료**

보성군은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민선 8기 군수 공약 및 지시사항 보고회를 열고 공약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소관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해 민선 8기 1년 6개월여 간의 군수 공약사항 추진 실적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공약 이행 실적 점검 결과 △보성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 △공공비축미곡 수매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주거 안전시설 지원 등 36개 공약사업은 조기 이행됐다. 나머지 44개 사업도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 중이다.

각종 행사 및 축제 통합 개최 방안 강구, 군정 주요 사업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철저 등 16건 군수 지시사항은 현재 9건이 완료됐으며 각종 시설물에 맞는 명칭(네이밍) 방안 강구 등 7건도 추진되고 있다. 공약·지시사항 이행 실적 이행률은 45% 수준이다.

보성군은 공약·지시사항과 같은 현안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정기 점검하는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양가람 기자

24일 태국 여행업 450개 바이어가 참가한 B2B 매칭에서 30개 업체와 1:1 대면으로 MICE 행사 최적지 여수의 매력을 알렸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한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경제전망세미나 행사에 참가하는 태국법인 한국 주요 대기업에도 여수가 기업행사·포상관광 단체가 선호하는 도시임을 홍보하는 한편 한태교류센터 등 기관을 방문해 여수 MICE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수시의 행사 참가는 지난해 8월 가진 태국여행업협회(TTAA) 정기 행사 초청에서 시 현지 설명회 개최 후 지속되는 초청으로 성사됐다. 그간 여수시 전략적 마케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영자 여수시 관광과장은 “한류 열풍에 맞춰 동남아시장부터 미주, 유럽까지



여수시가 지난 24~28일 제29회 TITF 2024(태국국제여행박람회) 행사에 참가해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MICE 유치 마케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MICE 도시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행사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가 지난 26일 여수시립요양병원과 함께 여천농협 화양지점에서 화양면 어르신 50여명에 의료봉사를 펼쳤다.

여수시 제공

광양시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 병원 3월부터 운영

광양시-다나소아과 협약 체결

광양시에서 오는 3월부터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몸이 아픈 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나소아과의원과 시청 접견실에서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다나소아과의원은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일·공휴일 등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의 진료를 맡는다.

협약식은 다나소아과의원 대표원장(김도균)이 참석해 의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서명했다.



앞서 광양시는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일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모를 추진했다. 시는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국비 지원 사업 ‘달빛어

린이 병원’ 유치를 추진해 이르면 3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복지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달빛어린이 병원) 운영 지침을 준수해 평일 9시~23시, 휴일 9시~18시까지이다.

시는 달빛어린이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협약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정 기관은 2년간 유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달빛어린이 병원 협약을 통한 진료 시간 연장으로 소아응급의료서비스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정신건강 이동상담소 ‘마음안심버스’ 첫 운행

여수시민들의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음안심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여수시는 29일 ‘마음안심버스’ 제막식을 가진 뒤 상담을 위해 첫 출발했다.

‘마음안심버스’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해 직접 찾아가 심

리지원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 검진과 스트레스 측정(뇌파·맥파) 및 측정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과 우울 고위험군에게 2차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재난 위기 발생 시 현

장 위기 대응, 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소로 운영된다.

마음안심버스 방문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마음 안심버스가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시, 자원봉사 교육·봉사활동

광양시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포스코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원봉사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27일 자원봉사나눔터에서 자원봉사 교육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의회 의장, 광양제철소 부소장, 광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등 16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자원봉사 관련 소양 교육, 리더의 역할, 재능봉사단 운영 방향 등 교육을 받고 프리덤 통기타 재능봉사단 공연에 이어 타일 원목 냅비반침 공예품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만든 공예품 300개는 중마노인복지관을 통해 독거 노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재능봉사단의 협업으로 만든 냅비반침을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값진 봉사활동에 뿌듯하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책 발굴
장흥군 관산읍**

장흥군 관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대중, 사선환)는 29일 2024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결산과 2024년 신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열렸다.

관산읍지사협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저소득 아동에게 제습기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 돌봄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읍민이 행복해지는 어머니 품 같은 관산’을 목표로 ‘엄마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올바르게 약 먹고 건강해져요’ 등 3개의 신규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올해 빈집 50동 철거
소유자 철거시 최대 400만원 지원**

순천시는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5년간 354동을 철거했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해 빈집 50동을 철거한다. 소유자가 철거할 경우 1동에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주택에 부속된 건축물이다.

부속 건축물만 철거할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달 5일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탬e시스템 위임장을 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빈집 출입폐쇄 조치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사업은 안전펜스 설치, 출입금지판 설치 등이다. 10동을 추진하고 1동 당 사업비는 100만원이다.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순천시에서 추진한다. 신청은 빈집 소유자가 순천시청 도시공간재생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